

“그 이름 요셉”

히브리서 11:22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의 이야기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1.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 39:3)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신실함과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부인을 겁간 하려 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를 매질하거나 죽이지 않고 감옥에만 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실과 정직이 요셉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안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 ‘정직’입니다. 치과의사는 이를 치료하기 전에 본인의 치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장원에서 머리를 만지는 분들은 본인의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정직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 세때 두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곡식 단을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다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개꿈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 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적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은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가 없기에 지금 현재의 삶만 즐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 왔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 유혹 앞에 굴복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겪어온 그 수많은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너져 버릴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는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난이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을 위협했던 요소는 광야에서의 더위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죄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다가 하루에 3 만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렇게 꿈을 꾸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명의 고관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떡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이 꾸는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술 책임자는 복직이 되었고, 떡 책임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복직하게 된 술 책임자를 통해 요셉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꿈을 꾸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3.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조차,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눈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자 했지만, 그 대가는 감옥에 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 그런 상황을 안겨다 준, 당사자들인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또 탓하지도 말고,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의 '그 때'가 찾아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용서'입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을 때, 과거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 50:18-21)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주관해 오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교만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 자신이 리더의 자리에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보디발 아내의 음해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을 배운 요셉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 그는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마른 구렁이에 빠져 목숨을 구한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구렁이에서 건져낸 후 아라비안 상인을 통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간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를 통해 감옥에 간 것도, 또 그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모든 과정과 상황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걱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33)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으로 인해 요셉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도 요셉과 같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나눠 주시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때문이었는지, 또 나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실천해 본 경험이 있거나,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용서를 실천해 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